

講評의 실효성과 문제점 : 個人別 사례 (2)

—교수 강의평가 實施事例 ⑥—

魯 正 鉉
(漢陽大 都市工學科)

교수 강의평가 實施事例

1. 한신大學의 教授講義評價制
2. 慶熙大學의 教授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3. 嶺南大 상경대학의 講義評價
4. 全南大 경영학과의 講義評價制 모색
5. 講義評價를 실시하면서 : 個人別 사례 (1)
6. 講評의 실효성과 문제점 : 個人別 사례 (2)
7. 教授講義評價 실시사례 연재를 마치며

이 글을 쓰면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으로 다소 갈등을 느꼈다. 필자의 글이 “강의평가를 해본 결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 무작정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쳐질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과 “우리 대학교육의 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긍정적 경험을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과 나누는 것일 뿐인데 어떠냐?”하는 담담함이 필자의 마음을 혼란시켰다.

그레도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후자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이 글의 독자들도 이러한 필자의 소박한 희망을 받아 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독자들이 거의 모두가 현직에 있는 선후배 교수님들이라는 점은 필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으며, 글을 쓰는 동안 몇 번이고 내용과 문구를 반복 수정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서두부터 구차한 빈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군·사·부 일체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일 것이며 비록 필자가 남달리 서구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호의적이긴 해도 유교적 풍토에 젖어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해오고 있는 강의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이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실시 경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교육학적 배경이 없는 필자의 무지로 인한 왜곡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생실습을 나가 처음 강단에서 평가를 받는 두렵고 겸허한 자세로 여러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의 뜻있는 가르침을 기대한다.

1. 講義評價 실시의 배경

우리 대학사회에서 강의평가는 일부 교수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이를 도입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도 작년부턴 강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본인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것은 본인이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한 1988년부터이다.

어려서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대학 졸업 후 16년만에 이루어진 이때부터 필자의 강한 욕구의 하나는 '가장 멋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다소 퇴색하긴 했지만, 과거 필자가 받아왔던 부실한 대학교육이 가져다 주었던 불쾌한 경험을 나의 후배들에게까지 겪게 할 수는 없다는 강한 의무감이 나를 강의에 대한 열정으로 몰아 넣기 충분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의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 강의시간에 질문은 고사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으며 기껏 지명을 해도 머뭇거리기 일쑤여서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이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필자가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한 첫 학기 첫 강의 시간의 모습이 마치 영화 화면처럼 명확히 떠오른다. 그때 필자가 받은 인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2시간에 걸친 강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쉴새없이 계속되었으며, 배포된 강의계획서와 각종 참고문헌이 뿔뿔이 기록된 강의내용서는 이제껏 받아왔던 대학 강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대학 강의는 이런 것이구나."하는 신선한 충격이 내게 다가왔다. 한 학기 동안 지속되는 강의는 시간 시간 강의 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첫 강의 시간에 받은 충격이 가실 때쯤 중강시간에 또 다른 충격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 학기 강의를 끝맺는 마지막 시간에 학생의 일원인 나에게도 예외없이 배포된 '강의 및 교수 평가표'는 여러 학생들의 미묘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강의 시작 전에 강의실 칠판을 닦아 왔던 지극히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던 필자에게 있어서는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평가한다?"라는 놀라움은 잠시뿐 배포된 평가표 내용은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하였다. 강의의 난이도, 진행속도의 적절성, 과제물의 적절성, 평가의 합리성, 교수의 성실성 등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치밀한 것이었다.

강단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첫 학기를 마무리하며 이번 학기의 강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평가해 보기로 작정하고, 평가표를 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교육학적 배경이 없는 공학도로서 평가항목을 작성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유학시절의 강의평가표를 찾아 이를 기초로 평가항목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결국 함께 유학시절을 보냈던 현 전 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선배를 통해 영문으로 된 강의평가표를 얻게 되고, 그 분과 함께 영문 강의평가표를 복사인쇄하여 평가표로 사용하게 된 것이 강의평가의 시작이었다.

2. 設問內容 및 評價節次

영문평가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포한 결과 평가 당사자인 학생들이 설문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설문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 이외에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문평가표를 번역하고, 설문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새로운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특히 이 평가표에는 강의에 대한 단순한 평가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문내용을 포함하였다.

평가 내용은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교육자의 정보인 평가자의 학과, 학년, 성별을 묻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설문은 형식상 크게 주

관식과 객관식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평가자의 학과, 학년, 성별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였다.

주관식 설문 내용은 A, B, C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부분은 4개 항의 질문이 주어지는 바, 이들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전 과목과 담당 교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가와 과목 선택이 학생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인가를 묻는 내용들이다.

B부분도 4개 항의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들 설문은 교수, 교과내용, 강의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학생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점을 묻는 질문도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분포와 부여된 학점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학점부여의 적절성을 담당 교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C부분은 9개 항으로, 강의 내용 및 진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강의 및 수업진행 방법의 적절성, 교수방법의 유효성, 지식습득의 과다, 과제물의 적절성, 수업내용의 난이도 등이 질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은 A3나 A4를 제외하고는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끝으로 D부분에는 5개 항의 주관식 설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질문은 객관식 질문으로 답할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즉, 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장·단점, 강좌내용에서 고쳐야 할 점 등이 포함된다.

이 평가표는 증강시간에 배포하여 작성토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회수하며,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그 자리에서 검토하여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피력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객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전산입력하여 단순한 집계뿐 아니라 항목간의 상호 연관성을 통계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정리하여 다음 강의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3. 評價結果 및 講義改善

필자가 다음의 평가표를 통해 강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학기 강의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가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한 후 2~3년간의 평가 결과로 본인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교수법 및 강의내용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강단에 서기 시작한 뒤 2~3년간의 초기에 시행했던 어느 한 강좌에 대한 평가결과 중 부정적인 평가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을 기억을 더듬어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 결과 1: “교과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렵다.”(C8, C9 항목 관련)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C3 항목 관련)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강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많은 내용을 강의하려다 보니 예제를 들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결과,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강의 내용을 요점 중심으로 바꾸어 필수적인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예제로써 반복 설명하였으며, 기타 추가적인 지식은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 평가 결과 2: “너무 말이 빠르다.”(D1 항목 관련)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진도가 늦어지고 따라서 마음이 조급해지다보면 말이 빨라지게 된 것 같다. 더욱이 전공분야 용어에 익숙지 못한 학생들에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 말의 속도를 줄이고, 강의중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 들면,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였다.

• 평가 결과 3: “과제물에 대한 정답을 알려 주어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D5 항목 관련)

강의 내용이 많다보니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시간 과제물을 내주는 것은 하나 많은 강의 부담으로 일일이 과제

교수 및 강좌 평가표

작성일자 : 1992.

과 목 명				담당 교수		
학 과		학 년		성 별	남 · 여	

※ 다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A1. 과목 신청서 담당교수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는가?	++	+	0	-	--
A2. 과목신청서 해당과목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는가?	++	+	0	-	--
A3. 이 과목은 본인에게 필수과목이었는가?	+			-	
A4. 이 과목은 본인에게 전공과목이었는가?	+			-	
B1. 본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점	A	B	C	D	F
B2. 교과내용에 대한 전반적 등급	A	B	C	D	F
B3. 교수에 대한 전반적 등급	A	B	C	D	F
B4. 강좌 전반에 대한 등급	A	B	C	D	F
C1. 강의 및 수업진행방법은 적절하였는가?	++	+	0	-	--
C2. 교수가 학생 개개인의 이해정도에 관심을 두었는가?	++	+	C	-	--
C3. 수업중 쉽게 집중할 수 있었는가?	++	+	0	-	--
C4. 교수가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종합, 정리해 주었는가?	++	+	0	-	--
C5. 이 강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었는가?	++	+	0	-	--
C6. 교수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개발을 유도하였는가?	++	+	0	-	--
C7. 과제물은 교과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	+	0	-	--
C8. 교과내용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는가?	++	+	0	-	--
C9. 교과내용은 분량면에서 너무 많았는가?	++	+	0	-	--

※ 다음을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D1. 담당교수의 주요 장단점은?	
D2. 이 과목 내용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D3. 이 강좌에서 고쳐야 할 점은?	
D4. 시험과 학점에 대한 의견은?	
D5. 기타 의견	

물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각 과제물에 틀린 내용을 적어주기보다는 모범정답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 4: "쉬운 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C8, D3, D5 항목 관련)

국내에서 출판된 관련 전공서적이 부족하며, 그나마 몇 서적은 내용이 부적절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영문원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영문원서를 교재로 할 경우, 일부 학생들에게는 영문해석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국내 출판 전공서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

해를 구했으며, 적절한 국내 서적이 출판될 때까지 영문원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 5: "C, D 학점도 주었으면 좋겠다." (D4 항목 관련)

D4는 시험과 학점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 평가가 기말시험 전에 실시되므로 최종학점에 대하여는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 재수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 D 학점을 주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학점은 모두 F 학점을 부여하여 재수강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므로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학점부여방식

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학점부여방식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학기초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이외에도 A항목들과 B항목들에 대한 응답결과의 상호 종속성을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과목 신청시 해당 과목이나 담당교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우, 교수나 강좌 전반에 대한 등급을 높게 평가하였다.
- 학생들은 해당 과목이 전공필수과목일 경우 교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 등급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체로 본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점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制度 定着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필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강의평가표를 작성 배포하고 그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해 가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를 통해 필자는 강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많은 개선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5~6년이 지난 지금 많이 게을러지기도 했지만, 초기에 행해 왔던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가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결과를 얻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보다는 현재와 같은 교육여건으로는 더 이상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마음만 괴롭기 때문이다.

충실한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충분한 수업준비,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피드백(feed back)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중한 강의부담, 저술활동, 연구활동, 학사행정, 학생지도, 학회활동 등으로 인해 늘 쫓기는 하루 하루의 생활은 강의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욕구

를 느끼기보다는 평가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게 된다.

강의평가제도를 모든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강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강의평가제도를 시행하면 무조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판단된다. 강의평가제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들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 평가결과를 교수 재계약평가에 반영할 때 자칫 오류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점 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대로의 강의평가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 학기 3~5 과목의 강의를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실한 강의와 이에 따른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학교 전체에서 제도적으로 일괄 시행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강의평가에 익숙해져 있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점차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좁은 시각으로 볼 때, 강의평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교육부 또는 학교당국에서 평가에 따른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평가표 제작 배포, 전산처리 및 분석 결과 정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OMR 카드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평가에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감정에 좌우됨이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평가결과를 단지 담당 교수들 자신에게만 제공하고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보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많이 달라졌으나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학생들이 좌지우지되었던 과거의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경우, 이는 자칫 사제지간에 심각한 불신감을 가져다 주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담당 교수들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학사행정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각 행정단위의 기본인 학과 사무실의 행정능력 및 기자재, 실험실 관리 능력을 적극 보완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대학원 학생들을 이용한 유급 수업 조교의 확충 또한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가 개인적으로 시행하였던 강의 평가에 대한 경험과 한계점을 서술하였으며, 또

한 이에 대하여 그간 느껴왔던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들 몇 가지 나열하였다. 거듭 하는 말이지만 교육학적 배경도 없고, 필자보다 이에 대한 경험도 많고,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배교수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니 다소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필자의 적은 경험, 작은 의견이 불씨가 되어 실질적인 대학교육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다면 어떠한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육개방으로 이어질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할 교수의 일원인 내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일까?”를 자문하며, 여러 선후배 동료 교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다린다. ■